

“봄 소풍 가자”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 준비 순조

19-28일 열흘간 고인돌 유적 일원서 전시·공연 행사 다채 DM 버스킹·추억의 DJ박스 등 관객 참여형 콘텐츠 운영

화순군이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으로 봄 소풍 가자'라는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곡 효산리-춘양 대신리에 걸친 5067기의 고인돌 유적권 일대에서 개최하며, 먹거리 부스와 피크닉 공

간을 조성해 다채로운 전시·공연 행사를 펼친다.

축제 기간 물명존에서 'DM 버스킹'이 열린다. 오는 20일에는 '낭만에 대하여'로 유명한 최백호와 '아침 이슬'의 양희은이 출연, 7080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솔(Sole)과 차세대 발라드 여인으로 불리는 박혜원(HYNN)이 출연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행복을 전한다.

오는 27일에는 '춧불잔치'의 이재성

이 출연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권인하도 그 특유의 '천둥 호랑이' 창법으로 팬들을 맞는다.

특히 향토 음식과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들어설 고인돌 장터에서는 '추억의 DJ박스'가 운영된다. 축제 기간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6일 동안 전문 DJ가 진행하며,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 사연, 깜짝 인터뷰, 현장 게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장 눈 여겨 볼만한 점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도곡 축제장 입구 맞은편에 있는 선사 체험장은 청동기시대 마을을 재현해 시대 생활상과 문화를 간접 체험해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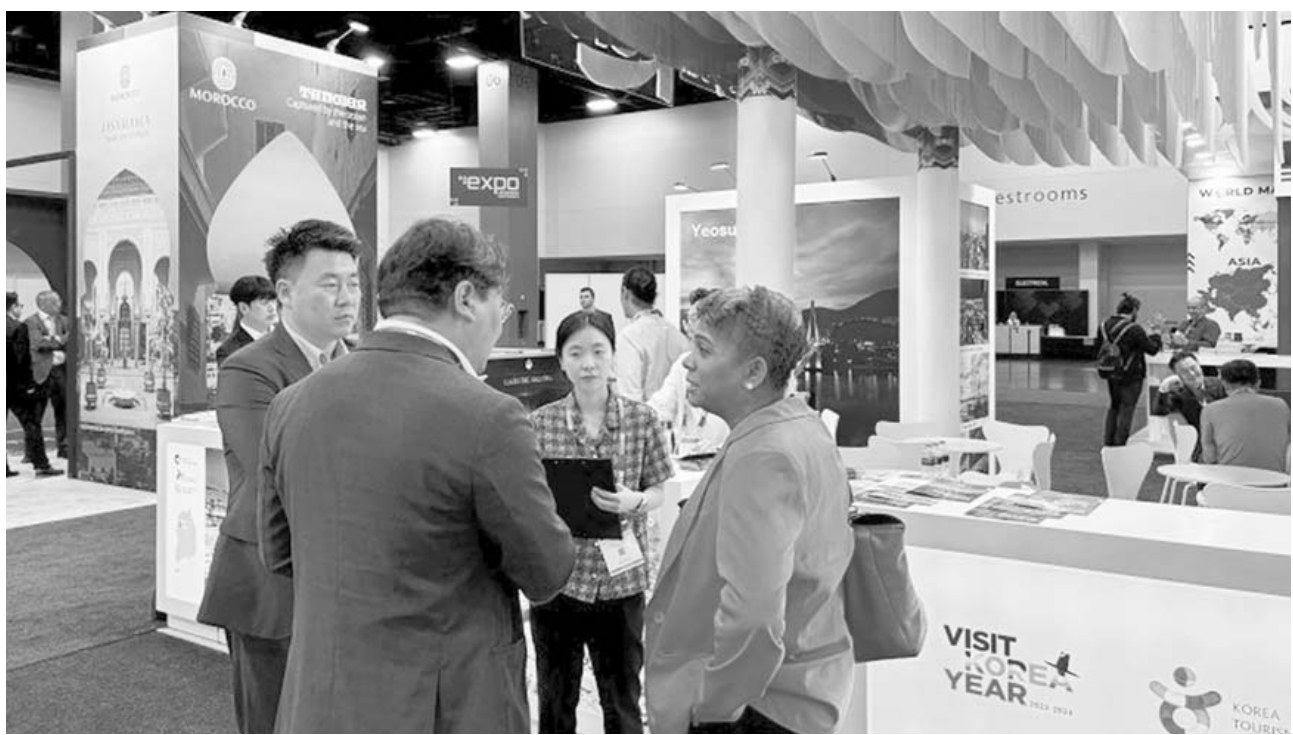
화순군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고인돌 유적지 일대 유채꽃밭 전경. (화순군 제공)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선사인이 돼 볼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선사인이 돼 볼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체험장 내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인형극, 레크리에이션, 버블쇼, 신디매직 등 갖가지 '가족 공연'이 축제 기간 주말에 집중해 펼쳐질 예정이다.

패밀리 존 어린이 직업 테마파크 '키즈라라'에서 어린이 대상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라면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등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봄소풍 가자 좋은 4월,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노랑게 물든 유채꽃과 푸른 하늘을 벗 삼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여수시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4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Seatrade Cruise Global)'에 참가해 국제 크루즈 유치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국제 크루즈 유치' 나섰다

美 크루즈 박람회 참가...동북아 크루즈 최적지 홍보

여수시가 미국에서 열린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참여해 국제 크루즈 유치에 나섰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4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Seatrade Cruise Global)'에 참가해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은 국제 크루즈 산업과 관련된 전 세계 120여개국 580여개 선사 등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서 여수시는 부산·인천·강원 속초·제주 등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와 합동으로 참가해 여수항 홍보에 주력했다.

시는 해외 주요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여수항 인프라와 여수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2026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주목받는 동북아 크루즈 최적지임을 적극 알렸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크루즈 컨설턴트 협회(Cruise Professional Advisors Alliance, CPAA)'와 함께 주요 선사를 대상으로 B2B(기업 대 기업) 상담을 진행, 로열 캐리비언(Royal Caribbean), 실버씨(Silversea) 등 7개 선사와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최윤기 MICE산업팀장은 "박람회 참가를 통해 국제 크루즈 선사와의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고, 국제 크루즈 향으로서 여수항의 경쟁력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체계 강화 등 국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장경순 순천시의회 "순천역'역명 변경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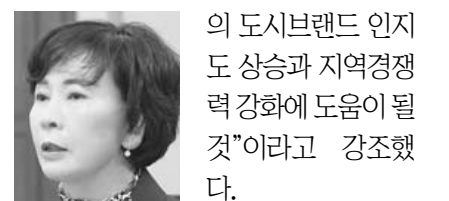
'순천정원역' 변경 제안...도시브랜드 상승·지역 경쟁력 강화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은 17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역' 명칭을 '순천정원역'으로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따르면 지난 1960년에 개통한 순천역은 연간 230만명이 이용하는 고속철도 교통의 중추역으로 성장했으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순천에

철도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철도역은 지역호보 효과가 가장 큰 시설로, 역명은 지역의 특징과 역사 등을 함축하고 있어 지역 방문객의 인상에 남는 단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원'을 넣은 '순천정원역'으로 변경된다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의 도시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순천역'의 역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순천역'에서 '순천정원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순천=양홍철기자

담양군 '담빛수영장' 재단장

수질정화 시간·횡수 단축, 생존수영 교시 등 운영

담양군은 17일 "군민에게 다양한 운동과 레저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담빛수영장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먼저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관련 전문체육인(센터장)을 채용한 후 프로그램을 개선했으며, 강습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별 강습반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영장 수질 정화 시간·횡수를 단축했으며, 앞으로 생존수영 교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반 개설, 수영대회 개최, 친질 우수직원 선발 등 프로그램 개선으로 군민의 사랑을 받는 체육시설로 거듭하고자 한다.

수영장 정원은 화초류를 심어 사

시사철 불거리를 제공해 모든 군민이 편하게 방문하고 휴식하는 장소로 만들 예정이다.

이병노 군수는 "새롭게 단장한 담빛수영장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자 한다"며 "수영장을 이용해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담빛수영장은 지난 2018년 8월 개장해 성인에서 유아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을 갖췄으며, 2022년 3월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담빛스장 시설을 구축하면서 군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농어촌공 구례지사, 은퇴직불금 시행

농지이양 은퇴 고령농업인 대상...청년농업인에 농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가 농지이양은퇴직불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은퇴직불금 대상자가 첫 계약을 체결해 오는 5월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 받게 됐다. (사진)

농지이양은퇴직불금사업은 고령농업인(만 65~84세)이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 은퇴를 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을 대상



으로 한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등 두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최대 20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최대 16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례=임종길기자

장성 방치 폐교 주민공간 '탈바꿈' 복하면 약속중→오감약수터 조성

6년 전 폐교됐던 장성군 북하면 약속중학교가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장성군은 17일 "2018년 폐교한 약속중학교에 지역민을 위한 공유공간 '오감약수터'가 조성돼 최근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감약수터 명칭은 약속리에 자리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주관하고 북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해 추진한 '폐교 활용 정책사업'을 통해 잔디 식재, 족구장 설치, 옥외화장실 개선 등 기반공사를 시행했으며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김한중 군수는 "반백 년 가까이 마을의 정서적 중심지로 기능해 온 약속중학교가 주민 행복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북하면에 한층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하면은 오감약수터 개소식 이후 면소재지 인근 도로변의 쓰레기를 줍는 등 1시간 가량 봄맞이 대청소 시간을 가졌다. /장성=김문태기자

곡성군 '마천목장군·도깨비 설화' 대표 브랜드 선정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3년간 국비 지원

곡성군은 17일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하는 '내가 만난 첫 번째 국가유산-마천목장군 도깨비를 만나다' 사업이 문화재청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은 문화재청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이다. 지역 우수 사업이나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이력

이 있는 사업 중 대표사업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개발한다.

그동안 전국에서 운영된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 최종 10곳이 선정됐고, 곡성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내가 만난 첫 번째 국가유산-마천목장군 도깨비를 만나다'는 보물인 '마천역문화유산 활용 사업'과 도깨비 설화를 인형극과 체험을 통해 친숙하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으로 우수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문화재청의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된 바 있다.

이번 대표 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곡성군은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를 지원 받게됐고, 홍보책자 발간과 연계사업 등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은 곡성의 문화콘텐츠의 우수성과 가치를 입증받은 것으로, 더욱 풍성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군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장흥군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추진

13만보 달성시 선착순 500명 상품 지급

장흥군은 17일 "29일까지 모바일 앱(워크온)을 활용한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민과 치매환자,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걷기행사는 치매극복을 기원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설치 후, 지역주

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걷기 행진 기간 동안 목표 걸을 수 13만보를 달성한 참가자에게는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예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택기자